

8. 수술시 세침흡인 검사의 유용성

- 췌장 두부 종괴에 대하여 -

Usefulness of Intraoperative Fine Needle Aspiration

- Mass in Pancreatic Head -

박영년, 이광길, 김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및 외과학 교실*

췌장 두부의 종괴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을 위한 세침 흡인 검사법은 생검에 의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비교적 손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진단율이 높아 근래에 선호되는 검사방법이다.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수술시 병변 부위를 절개 생검하여 동결 절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병증의 병발이 높고 정확히 병변 부위의 조직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세침흡인 검사는 좀더 정확하게 병변부위에서 충분한 양의 세포들을 흡인 할수 있으며, 합병증의 병발이 적고, 숙련된 병리의사가 검색할 경우 동결절편보다 빠른 시간내에 동결 절편 검사와 같은 정도의 정확한 진단결과를 보고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췌장 두부 자체의 종괴 혹은 그 주위에 발생한 종괴로서 수술전 진단이 없었던 예들을 대상으로 수술시 세침흡인을 시행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후 toluidine blue로 염색하여 관찰하였으며, 약 2년간 31 예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악성 질환으로는 췌장암종 15 예, 말단부담도암 5 예, 십이지장 유두부주위암 1 예였으며, 양성 질환으로는 만성췌장염 8 예, 결핵 2 예였다. 진단결과의 확인은 수술하여 절제된 조직의 병리소견이나 세침흡인하여 얻은 세포의 세포군집절편을 이용하였으며, 검사결과 의양성인 예는 없었으며, 의음성이 1 예 (3.2%)였다. 의음성이었던 1 예는 Papanicolaou염색을 시행하여 다시 살펴보았으나 분화가 좋아서 암종으로 확진하기 어려운 예였다. 진단이 유보되었던 3 예 (12.9%)는 모두 최종 진단결과 만성 췌장염이었다. Toluidine blue 염색은 1 단계의 조작으로 가능하여 간편하고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 만성 췌장염에서는 괴사물질로 인해 도말배경이 매우 지저분하게 염색되어 상피세포의 비정형이 관찰되는 경우 분화가 좋은 암종과의 감별이 어려웠는데, 만성 췌장염에서는 상피세포에서 어느 정도의 비정형이 관찰될지라도 세포들이 비교적 작고 균일한 모습을 보이며 3차원 구조의 큰 세포 군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감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침흡인 세포검사후 천자부위에서 간혹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쉽게 지혈되었으며, 다른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다.

9. 췌장의 소도 세포 종양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Aspiration Cytology of Islet Cell Tumors of Pancreas

류근신, 이중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췌장의 종양은 통상 개복 수술에 의한 조직학적 검사로 진단되었다. 경복벽성 천자로 얻은 세포